

# 方回의 「和陶詩」小考\*

황영희\*\* · 권호중\*\*\*

## 目 录

1. 서언
2. 方回의 陶詩學習
3. 方回의 和陶詩 主題
  - 1) 淵明追慕
  - 2) 田園閑寂
  - 3) 往事後悔
  - 4) 人生無常
4. 맺음말

## 1. 서언

陶淵明은 그의 생전이나 또는 그가 죽은 뒤 상당한 기간 동안 그의 문학적 가치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顏延之가 「陶徵士誄并序」를 써서 도연명을 한번 드러내고, 蕭統이 그의 문집을 편찬하고, 또 그의 작품에 서를 쓰면서 비로소 문단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다 얼마 되지 않아서 北齊의 陽休之가 소명태자의 기초 위에서 『陶淵明集』 10권본을 편찬하였으니, 도연명의 북조에서의 영향도 알 수 있다.<sup>1)</sup>

\* 이 논문은 2013학년도 세명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연구임.

\*\* 세명대 중국어과 교수(주저자)

\*\*\* 경상대 중문학과 교수(교신저자)

1) 霍志軍, 「宋代和陶詩芻論」(『天水師範學院學報』 35卷 6期) 68쪽, 袁行霽, 「論和陶詩及其文化意蘊」, (『中國社會科學』 6期, 2003, 152쪽)

도연명이 문단에 알려지면서 문인들 가운데는 그의 시를 배우거나 모방하는 이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鮑照에게는 「學陶潛體」 1수가 있는데, 이것이 도연명시를 모방하는 효시이다. 이후 江淹의 「雜體詩」 30수 가운데 있는 「擬陶徵君田舍」(種苗在東臯)가 蕭統의 『文選』에 수록되면서 많은 주의를 끌게 되었다. 唐代에는 이러한 시가 많아지게 되었다. 이를 테면 崔顥의 「結定襄郡獄效陶體」, 韋應物的 「與友生野飲效陶體」와 「效陶彭澤」, 白居易의 「效陶潛體詩」 60수 및 司馬扎의 「效陶彭澤」 등이 그러한 시이다. 宋代에는 梅堯臣의 「擬陶潛止酒」와 「擬陶體」 3수, 劉敞의 「效陶潛體」 등이 있다.

이러한 학도(學陶), 의도(擬陶), 효도(效陶) 류의 작품과는 별개로 宋의 蘇軾에 이르면 대량의 '和陶之作'이 등장하게 된다. 蘇軾이 동생 蘇轍에게 보낸 편지에서 “옛 사람 가운데 예전 시의 체제를 모방하여 지은 시는 있지만, 고인을 거슬러 올라가 화창한 사람은 아직 없었다. 고인을 거슬러서 화창한 사람은 바로 동파 나에게서 시작되었다(古之詩人, 有擬古之作矣, 未有追和古人者也. 追和古人, 則始於東坡.)<sup>2)</sup>고 말하였듯이, 이미 고인이 된 사람의 시에 화창한 것은 소식에게서 비롯되었다 할 수 있다. 소식은 哲宗 元祐 7년(1092) 57세에 揚州 지사로 있을 때 「和陶飲酒」 20수를 지은 뒤僻적지인 廣東省 惠州를 거쳐 다시 65세가 되는 元符 3년(1100) 海南도의 儋州를 떠날 때까지 계속 도연명의 시에 화창한 和陶詩를 지었다. 그가 도연명의 시에 화창하여 지은 시는 모두 109수에 이른다. 안년지와 소동이 한 사람의 위대한 시인을 발굴해 내었다면, 소식은 도연명을 불후의 인물로 확립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소식의 和陶詩는 문단에 큰 반향을 일으킨다. 동생 소철은 소식과 거의 동시에 和陶詩를 짓기 시작하여 「和陶詩」 43수를 지었다. 이어서 소식의 문인인 晁補之, 張耒, 秦觀 등이 이어서 계속 和陶詩를 짓는다. 송인 邵浩가 편한 『坡門酬唱集』에 이들의 和陶詩가 실려 있다.<sup>3)</sup> 소식의 문인들 이후로도 송대

2) (清)王文誥輯注, 『蘇軾詩集』, 「子瞻和陶淵明詩集引」. 金甫暻의 『蘇軾“和陶詩”考論』의 「引言」에서 轉引함.

3) 송대 문인들 가운데 和陶詩를 창작한 문인들에 대한 전체 통계는 霍志軍의 「宋代和陶

에는 계속 和陶詩를 지었다. 陳與義에게는 「여러 사람들이 도연명의 ‘술 끊음’이라는 시에 화창하기에 인하여서 함께 짓다(諸公和淵明止酒詩因同賦)」라는 시가 있는데, 시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 사람들이 하나의 시제를 두고 함께 화창한 상황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소식의 문인들이 揚州에서 도연명의 「음주시」 20수에 함께 화창하였던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陳與義 외에도 여러 문인들이 도연명의 시에 화창하였으니, 李綱, 吳芾, 王質, 陳造, 陳起, 趙蕃, 張栻, 釋覺范, 張鎡, 劉黻, 舒岳祥, 于石 등이 그러했다. 蘇軾의 和陶詩가 ‘자연스러운 맛(自然之趣)’을 잃었다고 비평하였던 朱熹도 「和遊斜川詩」 한 수를 짓기도 했다. 이렇게 송대에 소식과 그의 주위 사람들이 和陶詩를 짓는 기풍을 열고, 그리고 후인들이 그 기풍을 이어받아 열심히 和陶詩를 지었던 일은 중국시사에서 도연명의 위치를 매우 굳건하게 해 주는 작용을 하였다.<sup>4)</sup>

宋 이후 金, 元, 明, 淸에서도 이러한 기풍은 계속 이어졌다. 금대에서는 趙秉文에게 비교적 많은 和陶詩가 있었다. 원대에도 적지 않은데, 方回를 비롯하여서 劉因, 郝經, 毛巖, 戴表元, 王惲, 安熙, 吳萊, 張養浩, 汪克寬 등이 그러했다. 명대에 이르러서는 和陶詩를 짓는 분위기가 절정에 이르렀는데, 그것은 명대 사대부들의 취향이나 추구하는 바와 일치하였기 때문이다. 명대의 사대부들은 청고한 인격을 숭상하고 생활의 정취를 중요시하였는데, 이것은 서법, 회화, 조경, 가구, 다도, 화도 등 각 방면에 모두 드러나고 있다. 도연명시에 화창하는 기풍은 이러한 인생의 취향과 예술적 취미와 일치하였다. 청대 역시 명대 못지 않았다. 袁行霈의 표현대로라면, ‘청대에 이르면 도연명의 시에 화창한 작품의 숫자는 통계로 잡을 수 없을 정도이다.’고 한다.<sup>5)</sup>

詩芻論」를 참고할 것. 霍志軍은 송대의 和陶詩 작자 수백 인을 살펴본 뒤에 이름이 확인되는 63인의 작품과 작품 수자를 제시하고 있다.

4) 霍志軍, 「宋代和陶詩芻論」(『天水師範學院學報』 35卷 6期) 68쪽.

5) 袁行霈의 「論和陶詩及其文化意蘊」 152-155쪽, 金甫暉의 『蘇軾“和陶詩”考論』 258-262쪽.

## 2. 方回의 陶詩學習

방회는 손님과의 대화형식을 빌려서 ‘글을 읽는 법(讀書之法)’과 ‘시를 짓는 법(作詩之法)’을 논한 바 있다. “독서에는 법도가 있으나, 작시에는 법도가 없다(讀書有法, 作詩無法)”고 하는 방회의 말에 손님이 의문을 제기하자, 방회는 먼저 ‘독서유법’에 대하여 설명한 뒤에 계속하여 ‘작시유법’과 관련하여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생각을 펼친다.<sup>6)</sup>

객이 여전히 나의 ‘作詩無法’이란 말에 의문을 가진즉, 이에 나를 힐책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대의 시는 처음에는 장퇴를 배웠고, 다음으로 소순흠과 매요신을 배웠고, 그리고 양만리와 육유를 출입하였다. 후에는 살이 찌서 가냘프지 않음을 후회하여 황정건과 진사도의 심원함과 엄밀함을 같이 묶고, 거기에 진여의의 평달함을 섞었다. 고체시는 처음에는 한유를 흠모하였으나 지나치게 박통함을 두려워하였고, 류종원을 흠모하였으나 지나치게 편협함을 두려워하였다. 원결을 흠모하였으나, 지나치게 짧고 뚫은 것을 두려워하였고, 위응물을 흠모하였으나, 수다스러움을 두려워하였다. 얼마 뒤에는 또 주자에게도 얻은 바가 있고, 사령운을 따르고 도연명을 뒤쫓았는데, 사령운을 모방하고, 도연명에 화창하면서 또한 자못 가까워졌다. 그런데도 당신은 ‘시를 짓는 데에 법도가 없다.’고 말하니, 이는 나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나는 생각에 잠기길 오래했다가 그리고 그의 말에 대답하여 말하였다: “그것은 모두 내가 젊었을 때의 미친 주장이고, 중년의 습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작년 마침 61세가 되어서야, 평생 60년의 잘못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지은 바 시는 쌓여서 통할 수 없을 정도로 배열되어 있는데, 서법을 모방하듯 한 병폐도 있습니다. 확 바꾸어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따르고, 붓이 가는대로 거리낌 없이 말하고, 생각을 얻으면 시로 쓰고, 생각을 얻지 못하더라도 또 애써 생각하여 힘들어 찾지 않았습시다. 그런 뒤에야 ‘시를 짓는 데에는 법도가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믿게 되었습니다(客猶疑余之作詩無法也, 則詰之曰, “子之詩初學張宛邱, 次學蘇滄浪梅都官, 而出入於楊誠齋陸放翁, 後乃悔其腴而不癯也, 惡其弱而不勁也. 束之以黃陳之深嚴, 而參之以簡齋之開宏. 古體詩, 其始慕韓昌黎, 而懼乎博之過, 慕

6) 『桐江續集』 卷32, 「虛谷桐江續集序」, 664쪽.

柳柳州, 而懼乎編之過. 慕元道州, 而懼乎短澁之過. 慕韋蘇州, 而懼乎諄諛之過. 既而, 亦於子朱子有得, 追謝尾陶, 擬康樂, 和淵明, 亦頗近矣. 而謂作詩無法, 是欺我也.” 予凝思久之, 而復其說曰“此皆予少年之狂論, 中年之癖習也. 去歲適六十一矣, 始悟平生六十年之非. 所作詩滯礙排比, 有模臨法帖之病. 翻然棄舊從新, 信筆肆口, 得則書之, 不得亦不苦思而力索也. 然後自信作詩不容有法.”)

손님과 대화에서 방회의 學詩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방회는 먼저 북송의 張耒를 모범으로 삼았으며, 이어서 蘇舜欽, 梅堯臣, 楊萬里, 陸游를 학습한 뒤에 黃庭堅·陳師道에다 陳與義를 학습하였다. 그리고 고체시는 먼저 당의 韓愈, 柳宗元, 元結, 韋應物을 학습한 뒤에 마지막으로 朱子를 학습하고, 동진의 謝靈運과 陶淵明을 모방하고 화답하면서 그들과 비슷한 수준에 까지 이르렀다고 밝히고 있다. 방회의 시학학습 과정에서 도연명이 가장 최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방회의 자서를 통하여서 알 수 있듯이 그의 시는 만년의 창작이 젊었을 때와 중년의 작품에 비하여서 풍격상으로 이미 큰 변화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시의 이러한 풍격의 변화는 만년에 학습한 도연명의 시가 매우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여겨진다.

방회가 도연명의 시를 학습한 배경으로 周靜은 네 가지 사항을 들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sup>7)</sup>

첫째, 방회는 비록 작시에 법도가 따로 없다고 하였지만, 시의 ‘格’을 매우 중요시하였다. 그는 “시에서는 격이 높은 것을 제일로 여긴다(詩以格高爲第一)”고 말하면서 바로 이 ‘격’을 가지고 강서시파와 강호시파를 공격하는 무기로 삼았다. 방회가 도연명의 시를 학습하게 된 배경에는 도연명시에는 이러한 남이 알아차리기 어려운 ‘格’이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방회는 당시의 시단이 변혁을 모르고, 고금을 변별하지 못한 채 맹목적으로 만당체(晚唐體)를 모방하던 경향을 반대하였다. 그는 그들이 창작한 시의 경계는 ‘냉벽협착(冷僻狹窄)’하고, 감정은 ‘빈약무력(貧弱無力)’하여, 시도(詩道)가 상실되고 기격(氣格)이 낮아져 시가창작의 건강한 발전에 이롭지 않다고 여기었다. 방회는 또 만당시를 학습하는 이들의 치

7) 周靜, 「論方回的崇陶與學陶」(『求索』, 2008/3) 182-183쪽.

명적 약점 두 가지를 지적하기도 하였다. 한 가지는, 그들이 단지 오언율 시에만 뛰어날 뿐, 7언 율시는 격(格)이 낮고 체(體)가 약한데 고체시는 더욱 지을 줄 모른다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는 ‘花’, ‘竹’, ‘鶴’, ‘僧’, ‘琴’, ‘藥’, ‘茶’, ‘酒’ 등으로 시의 재료가 협소하다는 것이다. 방회는 이러한 현상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도연명과 같이 고체시 창작에 성취를 이룬 시인을 학습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셋째, 도연명의 인품과 그의 정절을 흠모하였다. 도연명은 비범한 시가창작능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고대의 은일시인 가운데서도 가장 큰 명예를 누리고 있다. 오두미(五斗米)에 허리를 굽히지 않은 그의 고결한 정신과 “동쪽 울타리에서 국화를 따 드니 아득히 남산이 눈에 들어오는(彩菊東籬下, 悠然見南山)”는 그런 한적한 삶을 추구하였던 인품 역시 많은 사람들이 칭상하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넷째 방회는 도통(道統)에서 볼 때 주희의 충실한 추종자이었다. 주희는 도연명의 시를 매우 좋아하였는데, 고체시에서 성취가 매우 높은 편이다. 방회는 그 스스로 “주자에게 얻은 바 있다(於朱子有得)”고 말하였다. 방회가 도연명을 흠모하고 그의 시를 학습한 데에는 그가 유학에서 주희를 추종하였던 것도 하나의 배경이 된다.

방회는 도연명의 시를 자신의 시학학습 과정의 최후의 인물로 삼았으니 그의 인물됨에 대한 평가도 당연히 매우 높다. 그는 심지어 도연명의 풍격과 닮았는지의 여부를 가지고 다른 시인의 시를 평가하기도 하였다. 이를테면 동시대의 인물인 唐元(字, 長儒 : 1269-1349년)의 시를 크게 칭상하였는데, 그것은 唐元이 도연명의 시를 모방한 시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다. 그는 도연명을 학습하지 않고 唐末의 許渾이나 姚合을 학습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쌀 쪽정이 처럼 쓸어내어 버렸는데, 이 역시 그가 도연명의 인품과 시를 좋아하였기 때문이다.<sup>8)</sup> 방회가 역대의 시인들 가운데 도연명, 두보, 황정견, 진사도 이 네 사람을 가장 좋아하였다고 하지만, 그의 시학과정에서 도연명이 가장 최후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방회는 이 네 사람 가운데서도 도연명에 대한 애호가 가장 컸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시문을 통하여서 도연명을 언급한 실례는 일일이 예로 들 수 없을 정도인데 도연명과 관련된 그의 언급에는 모두 그에 대한 숭모의 정이 담겨있다.

8) 周靜, 「論方回的崇陶與學陶」, 183쪽.

방회는 도연명의 시에 대하여서도 높은 평가를 하였다. 「張澤民詩集序」<sup>9)</sup>에서는 “도연명의 시를 사람들은 모두 평담하다고 여기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천하의 호방함을 극하였다(淵明詩, 人皆以爲平淡, 細讀之, 極天下之豪放.)”고 하였고, 「秋晚雜書三十首」의 15째 수에서는 “시를 지을 때는 도연명을 공부 하지만, 그의 시는 정말로 따라잡기 쉽지 않다(賦詩學淵明, 詩固未易及)”고 평한 바가 있다. 특히 그는 5언 고시와 관련하여서 도연명의 시를 크게 숭상 하였다. 「送兪喻道序」<sup>10)</sup>에서는 “5언 고시는 도연명을 근거로 삼아야 하니, 謝靈運, 謝惠連, 謝朓이라 해도 사람의 뜻을 채우지 못한다. 위응물과 유중원은 도연명을 잘 공부한 사람들이다(五言詩, 陶淵明爲根抵, 三謝尙不滿人意, 韋柳善學陶者也.)”라 한 것이 그것이다. 또 「擬古五首」 넷째 수<sup>11)</sup>에서는 “문인들은 ‘屈宋’이라 칭하지만, 宋玉이 어찌 屈原과 짝하겠는가? 또 시인들은 도연명과 사령운을 나란히 받들지만, 사령운이 어찌 도연명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겠는가?(騷人稱屈宋, 宋豈敵子平. 詩家推陶謝, 謝豈肩淵明.)”라고 하였고, 「秋晚雜書三十首」의 27째 시<sup>12)</sup>에서도 “세상에서는 ‘陶謝詩’로 칭하지만, 도연명에게 어찌 사령운이 나란히 설 수 있겠는가?(世稱陶謝詩, 陶豈謝可比)”라고 하여 도연명을 사령운보다 높이 받들었다.<sup>13)</sup>

방회가 도연명의 인품과 시를 추승한 것은 그가 도연명의 시에 직접 화창하는 작품을 짓는 것으로 나타난다. 袁行霽는 시제(詩題)에 근거하여 방회가 도연명의 시에 직접 화창하여 지은 시로 「和陶淵明飲酒二十首」와 「和陶詠二疎爲郝夢卿畫圖廬處道跋作」의 21수를 예로 들고 있다.<sup>14)</sup> 본고에서는 방회가

9) 『桐江集』 卷1, 359쪽.

10) 『桐江集』 卷1, 376쪽.

11) 『桐江續集』 卷26, 565쪽.

12) 『桐江續集』 卷2, 236쪽.

13) 孫凱昕, 『方回研究』(復旦大學, 博士學位論文, 2010年.), 29쪽.

14) 夏小鳳은 「步武淵明, 追悔其身-方回和陶詩芻論」(『瀋陽工程學院學報(社會科學版)』, 8卷 2期, 2012年.)에서 구체적으로 해당 시를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全宋詩』 통계를 근거로 방회가 도연명을 학습한 시는 48수라고 말한 바 있다. 夏小鳳은 또 袁行霽의 견해에 따라서 방회의 和陶詩(和陶詩)를 21수로 보고, 그 내용을 ‘對陶淵明人格情神的追慕’ ‘對故園的追思’ ‘對往事的追悔’의 세 가지로 나누어 간략하게 기술한 바 있다.

도연명의 「飲酒詩」 20수에 화창한 「和陶淵明飲酒」 20수만을 대상으로 하여서, 그 내용을 ‘淵明追慕’, ‘田園閑居’, ‘往事後悔’, ‘人生無常’의 네 가지로 나누어 각각의 작품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 3. 方回의 和陶詩 主題

#### 1) 淵明追慕

방回的 「和陶淵明飲酒」 20수는 시의 제목에서 이미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작품이 기본적으로는 도연명에 대한 존경과 추송을 시창작의 기본정서로 삼고 있다. 그렇긴 하나 이 20수 가운데서도 특히 도연명의 인품이나 그의 삶을 추송하는 것을 시의 주제로 삼고 있는 것은 둘째(其二), 셋째(其三), 다섯째(其五), 여섯째(其六) 작품이 두드러진다. 먼저 둘째(其二) 작품을 살펴보기로 한다.

康廬插南斗	여산이 남두성을 찌르니
其西柴桑山	그 서쪽이 시상산이네.
我往搥風竹	나는 가서 바람부는 대나무를 당겨보니
如聽淵明言	마치 연명의 말을 듣는 것 같더라.
作歌以自挽	노래를 지어 스스로 죽음을 애도하였으니
於今垂千年	지금에 이르기를 천년이나 되었네.
有口可與飲	입만 있으면 가히 더불어 술을 마실 수 있겠지만
公心誰其傳	그대의 마음만은 누가 전할 수 있겠는가?

이 시의 自註에 “도연명은 송 원가 4년 정묘년 9월에 졸하였다. 그는 진 흥녕 3년 을축년 출생이니, 지금 갑신년에 이르기까지 940년이 되었다(宋元嘉四年丁卯九月, 淵明卒. 其生晉興寧三年乙丑, 至今甲申, 九百四十年.)”고 하였

다. 도연명의 생졸년과 관련하여 다소의 이설이 있긴 하지만 방회의 말대로 동진의 흥녕 3년(365)에 출생하여 원가 4년(427) 63세로 졸하였다는 것이 통설이다.<sup>15)</sup>

도연명의 고향은 江州 潯陽郡 柴桑縣으로서 지금의 江西省 九江市 서남쪽에 해당하며, 동쪽으로는 廬山이 보이는 곳이다. 시의 내용으로 보아서 방회는 전에 도연명의 고향으로 가서 그의 거처를 방문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도연명은 생전에 자신의 죽음을 애도하며 「挽歌詩」 3수<sup>16)</sup>를 지은 바가 있다. 그리고 죽기 직전에는 「自祭文」<sup>17)</sup>을 지어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제사지내면서 세속에 휩쓸리지 않았던 자신의 삶과 사상을 서술하기도 하였다. 도연명은 또 그의 나이 41세이던 義熙 원년(405) 11월 彭澤丞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며 지은 「歸去來辭」<sup>18)</sup>에서 “뜰안의 세 갈래 길은 황폐해졌으나, 소나무와 국화는 그대로 있다(三逕就荒, 松菊猶存)고 말한 바 있는데, 방회가 시에서 말한 대나무는 바로 그 세 갈래 길이 있었다는 대나무 받을 가리킨다. 방회는 바로 이곳에서 도연명이 생전에 지은 「挽歌詩」를 떠올리며 그의 인품을 추모(追慕)하고 있다. 입이 있으니, 도연명처럼 술을 마시는 것은 흥내 낼 수 있지만, ‘固窮節’을 지키고자 한 그의 고결한 마음<sup>19)</sup>만은 송·원의 두 조정에 출사한 자신으로서 전하기 어렵다는 뜻을 고백하고 있다.

방회는 「和陶淵明飲酒」 셋째(其三) 수에서는 도연명의 궁절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그의 인품에 흠모하며 탄복하고 있다.

立功亦云可 公적 세우는 일 또한 가하다 말하지만

15) 방회가 이 시를 그의 나이 58세에 되는 至元 21년(1284) 甲申年 쓴 것이니, 그가 태어난 興寧 3년(365)부터는 919년이 되고, 그가 졸한 元嘉 4년(427)부터는 857년이 된다. 방회가 “지금 갑신년에 이르기까지 940년이 된다.”고 한 말은 어떻게 계산한 것인지 알 수 없다.

16) 楊勇, 『陶淵明集校箋』(正文書局, 民國 76年, 大北市), 249쪽.

17) 楊勇, 『陶淵明集校箋』(正文書局, 民國 76年, 大北市), 310쪽.

18) 楊勇, 『陶淵明集校箋』(正文書局, 民國 76年, 大北市), 266쪽.

19) 陶淵明의 「飲酒二十首」其二：“不賴固窮節, 百世當雖傳.”

於世能無情	세상일에 마음이 없을 수도 있겠네.
屈體喪厥節	몸을 굽혀 그 절개를 상실하는 것이
寧若埋我名	어찌 내 이름을 감춰버린 것과 같으리.
極不過餒死	기껏해야 굶어죽는 것에 불과하니
餓死勝飽生	굶어 죽는 것이 배불리 사는 것보다 나으리.
是翁醉中語	이 늙은이 취한 가운데 말하지만
細味足歎驚	자세히 음미하면 족히 경탄하고 놀랄 만하리.
寄奴復典午	유유(劉裕)가 사마씨(司馬氏) 진조(晉朝)를 회복시켜도
吾其無目成	나는 그를 인정하지 않으리.

도연명은 전원으로 돌아간 뒤에 시를 통하여서 생활의 어려움에서 오는 우울과 탄식을 노래하기도 하였다. 그는 「怨詩楚調示龐主簿鄧治中」에서는 ‘여름에는 오랫동안 굶주린 채 지내고 추운 겨울에는 덮고 잘 이불도 없으며, 하루를 보내기가 힘들어 저녁이 되면 새벽닭이 빨리 울기를 기다리고, 아침이 되면 또 해가 빨리 지기를 기다리는(夏日長抱饑, 寒夜無被眠. 造夕思谿鳴, 及晨願鳥遷.)’ 그러한 모습을 그려낸 바 있다. 「乞食」에서는 시인이 먹을 것을 구걸하러 무작정 집을 나서기조차 한다. 그러나 비록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처해도 도연명은 전원을 택한 본래의 뜻을 바꾸지 않았으니, 그 뜻을 「詠貧士」 다섯째 작품(其五)에서 ‘가난과 부귀가 늘 서로 싸우나, 도의 마음이 이기니 근심스런 얼굴 없다(貧富常交戰, 道勝無戚顏.)’고 노래한 바 있다. 도연명은 이 「詠貧士」 시 둘째 작품(其二)에서 “무엇으로 내 마음 위로할 것인가, 옛을 의지하니 이런 어진 사람들 많다(何以慰吾懷, 賴古多此賢.)”고 말한 뒤에 이어지는 시에서 榮啓期, 原憲, 黔婁, 袁安, 阮公, 張仲鬱, 黃子廉 등을 그러한 고궁수절(固窮守絕)의 현자로 묘사한 바 있다.

도연명은 「飲酒詩」 20수의 셋째 작품(其三)에서는 “(사람들이) 술은 있어도 마시지 않고, 다만 세속의 명예만 돌아볼 뿐(有酒不肯飲, 但顧世間名.)”이라고 비판한 뒤에 “내 몸을 귀하게 해주는 것은 살아 있는 일생 동안이다(所以貴我身, 豈不在一生)”고 강조하고 있다. 죽고 난 뒤의 세속적인 명예는 아무 소용이 없으니 살아 있을 때 진정(眞情)을 지키면서 술이나 마시자고 말하고 있다.

방회의 이 시는 바로 이러한 뜻에 화답하여서 먼저 첫 두 구에서 “공적을 세우는 일 또한 가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세상일에 마음이 없을 수도 있다.”고 말한 뒤에 바로 이어서 그는 ‘공적을 세우기 위하여 절개를 상실할 바에야 차라리 이름을 물어버리고 은거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였다. 관직에 나가지 않고 이름을 숨긴 채 은거하게 되면, 기껏 해봐야 굶어 죽는 것이니, 이런 경우 굶어 죽는 것이 오히려 배불리 사는 것보다 낫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회는 ‘도연명의 「음주시」 20수가 비록 취중에 한 말이긴 하여도, 자세히 음미해보면 족히 경탄하고 놀랄 만하다.’고 말함으로써 시에 담긴 도연명의 삶과 사상에 대하여 경탄하는 마음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였다. 마지막으로 방회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도연명은 義熙 원년(41세, 405) 11월 팽택령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간 뒤 두 번 다시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다. 그는 의희 9년(49세, 413)과 의희 14년(54세, 418)에 각각 著作郎과 著作佐郎으로 부름을 받았으나 나아가지 않았으며, 특히 420년 도연명의 나이 56세가 되는 해에는 劉裕가 짚을 찬탈하여 宋을 세우는 일까지 겪기도 하였다. 그는 62세에는 江州刺史 檀道濟의 방문을 받아 출사를 요청받지만 이를 깨끗이 거절하고 보내온 쌀과 고기를 돌려보낸다. 그리고 63세로 죽을 때까지 출사의 길로 나가지 않았다. 도연명은 이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선비는 영달하면 천하를 고무 다스리고, 곤궁하게 되면 홀로 그 몸을 선하게 한다(達則兼濟天下, 窮則獨善其身)”고 하는 유가적 이념과 절조를 지켰다. 방회는 도연명의 이러한 뜻에 화답하여서 시의 마지막에서 “설사 유유가 진을 회복시킨다고 하여도 나는 그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다. 만년의 절조를 꺾고 이민족의 조정에 출사한 방회로서는 사실 ‘宋朝를 세운 유유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어려울 터인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유유가 찬탈한 晉朝를 회복한다고 하여도 나는 그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으니, 이것은 방회의 도연명에 대한 경모의 뜻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도연명 전체 작품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작품은 다섯째(其五) 시인데, 방회는 이 시에 다음과 같이 화창하고 있다.

羊車一失馭	양이 끄는 수레 한번 제어하지 못하니
天地兵甲喧	천지에 병기와 갑옷으로 시끄럽다.
中國不自正	조정이 스스로 바로 서지 못하여
王業東南偏	왕업이 동남쪽에 치우쳤다.
運甓有貽厥	도간(陶侃)에게 후예가 있었지만
臥龍康廬山	여산에 은거하고 있었네.
使處王謝位	만약 왕씨나 사씨와 같은 지위에 있게 했더라면
大物豈不還	큰 인물 어찌 조정으로 돌아가지 않았으리.
千載飲酒詩	천 년의 세월 연명의 음주시 전해오는데
醉物謠醒言	취한 입으로 깨어 있는 말을 노래했네.

도연명의 「음주시」 20수 가운데도 다섯째(其五) 작품은 그의 대표작이자 천고의 절창으로 평가받는데, 이는 ‘마음이 세속에서 멀어져야(心遠) 삶의 참 뜻(眞意)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주제로 삼은 시이다. 방회는 이 시를 통하여서 도연명이 말한 ‘心遠’이나 ‘眞意’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것은 도연명이 말하였듯이, “말로 분명히 밝히려고 하면 이미 말을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欲辨已忘言)”이기도 하다. 방회는 도연명의 원시와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진조의 혼란을 언급하면서 도연명과 같은 큰 인물이 세상에 쓰이지 않게 된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첫 두 구는 쯔의 개국황제 武帝의 실정과 아들 惠帝 이후의 ‘8왕의 난’과 永嘉之亂에 의한 진의 혼란과 멸망을 언급한 것이다. 진 무제 司馬炎은 즉위 후에 검소한 기풍을 숭선수범하며 어진 기풍을 세우려 하였다. 279년에 뿔을 멸망시킨 이후에는 일련의 개혁적 경제 조치를 시행하여서 太康 연간에는 나라의 번성을 구가하였으니, 역사에서 ‘太康之治’라는 평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뒤로 갈수록 그는 정사를 돌보지 않고 사치와 음란을 일삼으면서 쇠락해지기 시작하였다. 그는 뿔의 昏主 孫皓의 후궁 5천 명을 자신의 후궁으로 삼으면서 거의 일 만에 달하는 엄청난 후궁을 갖게 되었다. 미인이 너무 많아 황제 스스로도 어떤 여인을 골라야 할지 몰라서 매일 양이 끄는 수레를 타고 양이 발길을 멈추는 곳의 후궁 처소에서 식사를 하고 밤을 보냈다. 후궁들은

왕의 사랑을 입기 위하여서 양이 좋아하는 댓잎을 처소 문에 꽂고, 양이 좋아한다는 소금물을 길에 뿌릴 정도였다.<sup>20)</sup> 무제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미녀를 구하기에 열을 올렸고, 이에 신하들도 황제의 음탕과 호사에 뒤질세라 경쟁을 벌이느라 지배계급 전체가 부패한 생활에 젖어 들었다. 무제에게는 또 매우 어리석은 황태자 司馬忠이 있었다. 이 사마충은 추녀 황태자비로 유명한 賈南風의 술책에 힘입어 惠帝로 즉위한다. 그러나 가씨 중심의 정권을 세우려 한 바로 이 賈皇后의 권력욕으로 인하여서 여덟 명의 황족이 16년 동안 밀고 당기는 싸움을 벌이는 소위 ‘팔왕의 난’이 일어나게 된다. 이들은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서 제각각 흉노족이나 선비족과 같은 이민족을 끌어들이게 되는데, 중원의 내부전쟁에 개입한 이민족은 마침내 그들만의 정권을 중원에 세우게 된다. 결국 팔왕의 난이 ‘永嘉의 난’을 유발하였고, 이 난으로 인하여서 서진은 멸망하면서 남쪽 建康에서는 東晉 정권이 등장하고 북쪽에는 五胡十六國이 성립된다. 방희의 시에서 “조정이 스스로 바로 서지 못하여 왕업을 동남 쪽으로 치우쳤다.”는 말은 이러한 저간의 사정을 말한 것이라 여겨진다.

다섯째 구에서 말한 ‘運甓(운벽)’은 도연명의 증조부가 되는 陶侃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晉書』의 「陶侃列傳」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sup>21)</sup>

도간은 일이 없을 때는 그때마다 아침에 백 장의 벽돌을 집 밖으로 옮겼다가 저녁에 집 안으로 운반했다.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물으니 답하길 “내가 바야흐로 중원에 힘을 써야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편안하면 일을 감당하지 못할까 염려되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그가 뜻을 굳게 하고 힘을 근면히 하는 것은 거의 이런 형태였다(侃在州無事, 輒朝運百甓於齋外, 暮運於齋內. 人問其故, 答曰: “吾方致力中原, 過爾優逸, 恐不堪事.” 其勵志勤力, 皆此類也.)

도간(259-334년)은 동진의 명장이었다. 그는 원래 빈한한 가문의 출신이었지만, 현의 관리에서 시작하여서 侍中, 太尉, 荊州·江州의 刺史 및 八州諸軍

20) 『晉書』 卷31에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羊車望幸’이란 고사가 생겼다.

21) 『晉書』 卷66.

都督을 역임하면서 長沙郡公에 봉해지기도 했다. 그는 陳敏, 杜弢, 張昌 등의 난을 평정하였고, 또 동진 초기에는 蘇峻의 난을 평정하여 동진의 정권을 튼튼히 하는데 큰 역할을 한 바 있다. 그가 다스리던 형주는 역사에서 “길에 떨어진 것을 줍지 않았다(路不拾遺)”고 기록하고 있을 정도이다. 그는 관직생활에 충실하였고, 음주나 도박을 좋아하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매우 칭상을 받기도 하였다. 나중에 장군 郭默이 제멋대로 趙王 胤을 살해하자, 병사를 이끌고 토벌하는데 병기 하나 병졸 한명 쓰지 않고 각목 부자를 사로잡음으로써 그 명성을 적국에 크게 떨친 바가 있기도 하다. 방회가 시에서 “도간에게 후예가 있었지만, 여산에 은거하고 있었다.”는 말은 바로 도연명을 지칭하여 한 말이다. 도연명 역시 한때는 천하를 바로 잡을 기개를 가지고 鎮軍將軍 劉牢之의 참군이 되기도 하고, 형주자사 桓玄의 막료가 되기도 하였으며, 建威將軍 劉敬宣의 참군으로 출사하기도 하였다. 방회가 보기에는 도연명에게는 도간의 뒤를 이어 천하를 안정시킬 자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여산 아래 은거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웠던 것이다. 그래서 “만약 왕씨나 사씨와 같은 지위에 있게 했더라면, 그와 같은 큰 인물이 어찌 조정으로 돌아가지 않았으리.”라고 노래한 것이다.<sup>22)</sup> 도연명이 세상을 잘못 만나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면서 그의 타고난 능력에 대한 칭상을 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 두 구에서 “천 년의 세월 연명의 「음주시」 전해오는데, 취한 입으로 깨어 있는 말을 노래했네.”라고 한 말은 도연명의 「음주시」 20수가 비록 술에 취해 한 말이긴 하나, 그 말은 사실 후인들로 하여금 천년의 세월 동안 참된 삶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깨어 있는 말이라고 칭상하고 있다. 방회의 이 시는 도연명의 타고난 자질과 함께 그의 시에 담긴 삶의 철학을 흠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방회가 보기에는, 도연명은 난국을 안정시킬 타고난 자질이 있음에도 불구하

22) 王謝는 琅琊 王氏와 陳君 謝氏의 합칭으로서 世家大族의 대명사로 쓰인다. 짧은 '永嘉의 난' 이후로 南양 왕씨와 진군 사씨가 북방에서 金陵으로 온 뒤로 王道와 謝安을 비롯한 그 후손들이 東晉, 宋, 齊, 梁, 陳 다섯 왕조의 조야에서 실제적 권력을 잡고 두드러진 성취를 이루었으니 후인들이 이를 질투하여 '王謝'라고 합칭하였다.

고 크게 등용되지 못하였다. 이럴 때 그는 변화의 기미와 기틀을 파악한 뒤 전원으로 은퇴하여 선비로서 출처를 분명히 한 ‘窮節’을 지켰다. 방회는 도연명의 「음주시」에 화창하는 방법을 통하여서 그의 이러한 인품과 삶에 경모의 마음을 잘 드러내었다.

## 2) 田園閑居

방회는 송이 망하고 원의 조정이 들어서서 크나 큰 격동 속에서 초년에 지냈던 ‘兼濟天下’의 포부를 거의 상실하였다. 그는 元軍의 검망 앞에서 무릎을 꿇고 유가의 대의를 버리고 항복하였다. 그는 억지로 투항의 변을 말하기도 하였지만,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지니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그는 원에 투항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교체되었다. 두 조정에 출사한 ‘貳臣’인데 다 새 조정에서도 끝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는 어쩔 수 없이 ‘선비가 궁하게 되면 홀로 몸을 선하게 한다.’는 ‘獨善’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55세에 관직을 그만둔 방회는 81세로 죽을 때까지 전원에서 한적한 생활로 만년을 보낸다. 그가 대량의 한적시를 짓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의 결과이다.<sup>23)</sup>

방회는 그의 나이 80세에 지은 「送兪唯道序」에서 자신이 지은 시가 1만 여 수라고 자부한 바가 있는데<sup>24)</sup> 그 시는 지금 모두 남아 있지 않고, 일부인 2천 7백 여수가 『桐江續集』에 전해온다. 『桐江續集』은 방회가 관직을 그만두고 엮은 책이니, 여기에 실린 시들은 대부분 그가 은퇴한 후 한적한 시기에 지은 시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시 가운데는 전원생활의 정취를 묘사한 작품이 매우 많다. 도연명의 「음주시」 20수에 화창하여 지은 「和陶淵明飲酒」 20수에는 은

23) 吳媛, 『方回的閑寂詩研究』(河北大學碩士學位論文, 2006年) 26쪽.

24) 『桐江集』卷1, 「送兪唯道序」: “내 금년 나이 80세로서 관직을 그만둔 지 26년인데, 군민을 위하여 가산을 다 써버려 극히 가난하지만, 걱정하지 아니 한다. 그러나 시가 만수나 되니 이 일로 자못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다(予今年八十, 休官二十六年, 爲郡破家, 貧極不憂, 詩餘萬首, 頗以此事知名.)

퇴 이후의 그러한 전원생활의 한적한 정서는 물론이고 전원에서의 곤궁한 생활과 곤궁한 가운데서도 선비로서의 기개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 등이 잘 묘사되어 있다. 먼저 「화도연명음주」 20수 가운데 열째(其十) 작품을 통하여서 그러한 전원의 아름다움과 한적한 정서를 묘사한 내용을 살펴본다.

此邦最佳處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은
乃在城北隅	바로 성 북쪽 모퉁이에 있다네.
野田蕎麥傍	들판 메밀밭 곁
松下復問塗	소나무 아래에서 다시 길을 묻는다.
酷愛古石峙	오래된 돌 언덕 특히 사랑하여
故緩羸驂驅	일부러 늦추어 지친 말 수레 몬다.
一生能幾許	한 평생 얼마나 될까?
於茲十載餘	이제부터 10여년 남았으리.
夜榻醉臥穩	저녁 평상 위에 취하여 편안하게 누어있으니
何殊故園居	고향 정원에 거처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는가.

방회는 그의 나이 49세인 德祐 元年(1275) 7월 10일 建德府 지사로 나간다. 건덕부는 唐代에는 ‘睦州’였는데, 북송 宣和 3년(1121)에는 ‘嚴州’로 개칭되었고, 남송 咸淳 초에 ‘建德府’로 승격하였다가 원에서는 ‘建德路’로 개칭되었다. 대략 지금의 절강성 ‘建德’, ‘淳安’, ‘桐廬’ 3현에 해당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이었다. 방회가 50세 되는 덕우 2년 정월에 원의 병사들이 수도 臨安 부근인 皋亭山에 이르자 송의 조정은 어사 楊應奎를 보내어 옥새를 바치고 항복한다. 송의 태후와 嗣君은 조서를 내려 모든 군현이 원에 항복하라고 유시하였으며 방회 역시 이 조서에 따라서 군민을 이끌고 원에 항복한다. 이후 55세 되는 元 世祖 至元 18년(1281) 6월 1일 신임 建德路總管兼府尹인 周克敬이 이르자 방회는 7년간의 嚴州에서의 관리생활을 그만둔다. 그리고 다시 5년을 더 머문 뒤에 그곳을 떠나서 59세가 되는 지원 22년(1285)에 항주 三橋의 小樓에서 생활한다.

도연명의 「음주시」 열째 작품에서 도연명은 鎮軍將軍 劉牢之의 참군이 되

어서 孫恩의 농민반란을 정벌하기 위하여 지금의 절강성까지 갔던 일을 기억하며 “옛날 일찍이 먼 길을 떠나서 곧장 동해 구석까지 갔다(在昔曾遠遊, 直至東海隅)”고 말하였다. 그리고 시의 말미에서는 그러한 생활이 “현명한 방법이 아닌듯하여 가던 수레 멈추고 돌아와 한가로이 산다(恐此非名計, 息駕歸閑居.)”고 말하였다. 방회의 이 시는 건덕부 지사에서 물러난 뒤인 나이 58세에 지은 시로서 도연명의 원시의 뜻에 호응하여서 은퇴 이후 타향에서 고향과 다름없는 전원정취를 만끽하는 삶이 잘 묘사되어 있다. 낮에는 건덕부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 북쪽 구석을 찾아간다. 그곳을 찾아가면서 그는 들판의 메밀밭 곁의 소나무 아래에서 아는 길을 농부에게 다시 물으면서 찾아가는 길. 가는 도중에는 오래된 돌 언덕이 너무 좋아서 가는 길을 일부러 늦추기도 한다. 「화도연명음주」 20수의 열넷째 작품(其十四)에서 방회는 “초목이 정말 맛있다(草木故有味)”고 표현하기까지 하였다. 이제 성 북쪽의 그곳을 다 구경하고 나면 돌아와서 저녁평상에 편안히 누워서 하루의 일상을 되돌아본다. 그러니 이러한 삶이 고향의 정원에서 거처하는 삶과 어찌 다르겠는가? 이 시는 그러한 한적한 삶의 모습을 잘 담아내었다.

그러나 방회의 한적시에는 전원의 목가적인 모습만 그려져 있지는 않다. 그의 시에는 오히려 전원생활에서의 겪는 경제적인 곤궁함이 많이 묘사되어 있다. 이어서 「화도연명음주」 20수 가운데 열두째(其十二) 작품을 통하여 관직에서의 은퇴 이후 전원생활에서의 겪는 그의 곤궁함을 살펴본다.

行樂忽有感	행락을 즐기다 문득 느낌이 있으니
當此窮秋時	이렇게 가을이 다해가는 때를 맞닥뜨렸네.
吾生會亦爾	나의 삶 틀림없이 또한 그러한데
落葉與樹辭	떨어지는 잎이 나무와 헤어지듯 하다.
田父屋頗寬	농부치곤 집이 자못 넓은데
生理僅存茲	나서 번 것으로는 오직 이것만 남았네.
積漣既已迫	밀린 빗으로 이윽고 꺾박받고 있으니
悉售不復疑	(집과 책을) 모두 팔아야 함은 틀림없으리라.
寧免世人笑	차라리 세상 사람의 비웃음에다가

且復相輕欺    또 경멸당하는 일만은 면해야겠네.  
 兒輩勿戚戚    애들아 슬퍼하지 마라  
 酒至姑飲之    술이 오면 잠시 즐기자.

이 시는 도연명의 「음주시」 열두째 작품(其十二)에 화창한 작품이다. 도연명의 「음주시」 20수에는 전원생활에서의 그의 곤궁함 삶을 묘사한 것이 적지 않지만, 이 열 두 번째 작품은 그러한 곤궁한 삶의 묘사보다는 “한번 떠났으면 그것으로 그만이지 어찌 다시 망설이겠는가?(一往便當已, 何爲復狐疑)”는 것을 시의 주지로 펼치고 있다. 방희의 시가 도연명의 시에 화창한 시이긴 하지만, 그 주지가 ‘가을이 다해가는 시점에서 문득 갖게 되는 전원에서의 곤궁한 삶’을 묘사하는 데에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이 시는 도연명시에 대한 ‘和韻’ 일 뿐으로 ‘和意’의 성격은 적다고 할 수 있다.

시의 내용은 방희가 밀린 빚 때문에 가산을 모두 팔아야 할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밀린 빚 때문에 집과 책을 팔아서 해결하는 그러한 마음은 『西齋秋日雜書』 5수<sup>25)</sup>의 넷째 작품(其四)에는 더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百間以買屋    백 칸으로 집을 사고,  
 萬卷以買書    만권으로 책을 산다.  
 書多讀不既    책 많아도 읽는 것 다 못하고,  
 屋寬住有餘    집이 크니 사는 데에 넘친다.  
 彼索子錢者    자식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저 사람들  
 日夜號庭除    밤낮으로 집 앞에서 외치고 있구나.  
 勇銳割此物    과감하게 이 물건들을 베어내니,  
 煎迫姑少紓    볶고 압박함이 잠간 완화되었다.  
 老勿費眼力    늙어서 눈을 너무 쓰지 마라,  
 村墟亦可居    시골동네라 역시 거할만 하다.

고향인 翁縣에 있던 방희는 至元 21년(1284) 정월에 江州로 간다. 그리고 4월에 강주를 떠나 5월초에 翁縣으로 돌아온 뒤, 5월 하순에 다시 섭현을 떠

25) 『桐江續集』 卷5, 275쪽.

나 건덕으로 돌아간다. 그는 建德 秀山에 집이 있는데 장자 存心과 차자 正心이 그곳에 살도록 하였다. 당시 방회는 옛날 빚으로 매일 꺾박을 받았지만, 자식들이 해결할 수 없었다. 그래서 방회가 건덕에 직접 가서 6월말 수산집의 반을 전당잡아서 재물을 얻어서 옛 동료에게 밀린 빚을 상환하였다.<sup>26)</sup> 그러나 시에서 “모두 팔아야 한다.”는 것은 남은 집과 책을 다 팔아야 한다는 뜻일 것이다. 방회의 한적시에는 이러한 삶의 궁핍한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이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의 열셋째(其十三)작품에도 이러한 곤궁함이 묘사되어 있다.

士本不畏貧	선비는 본래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所畏迫老境	두려운 것은 노경에 가까워지는 것이라.
百憂無一樂	백 가지 근심에 하나의 즐거움도 없으니
可醉不可醒	취할 수만 있을 뿐 깨어있을 수 없다.
寒風頗欲霜	찬바람에 자못 서리 내릴 듯하여
縫補闕袍領	외투 옷깃의 빠진 부분 기우고 보충한다.
酒膽一何大	술 담력 어찌 그리 큰가?
和陶效坡穎 <sup>27)</sup>	연명의 시에 화답하며 동파 형제를 본받는다.
詩成間亦佳	시가 완성되면 간혹 또 좋기도 하니.
未忍一炬炳	차마 아직은 촛불을 잡지 못하네.

도연명의 원시는 ‘술을 빌려서 어리석은 채, 세상일을 묻지 않고 취하여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다. 방회는 이에 화답하여서 ‘가난한 가운데서 근심뿐인 삶이니, 할 수만 있다면 술에 취해 잊어버리겠다.’는 것을 주제로 삼고 있다. 찬바람이 불고 서리 내리는 계절이 되니 입을 옷도 제대로 없어서 외투 깃의 떨어져 나간 부분을 직접 깎고 덧입혀야 할 정도이다. 그래도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시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두 구에서 “시가 완성되면 간혹 좋기도 하니, 차마 아직은 촛불을 잡지 못하네.”

26) 潘栢澄, 『方虛谷研究』, 41쪽 : “六月末, 典秀山宅一半, 予舊日僚友, 得資以報償欠.”

27) ‘穎(穎)’은 ‘穎’과 다른 글자이나 방회는 ‘穎’을 ‘穎’과 같은 뜻으로 사용하여서 蘇東坡와 蘇轍을 가리키는 ‘坡穎’의 의미가 되게 하였다.

라고 한 것은 도연명이 원시에서 “거나하게 취한 나그네에게 한 마디 전하니, 해지면 촛불 밝히고 즐겨야 한다(寄言酣中客, 日沒燭當秉)”는 말에 대한 답변이라 여겨진다. ‘날씨가 추워졌고, 옷도 또한 헤어졌으니, 해가 지고 난 뒤까지 촛불 잡고 놀기 보다는 시를 짓는 데에서 그 즐거움은 찾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원에서의 방회의 삶은 ‘곤궁함을 고집하면서 시로써 이를 극복하는(固窮作詩)’ 그러한 선비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방회는 元朝에 출사를 하면서 이미 스스로 절조를 상실한 바 있기 때문에 전원으로 물러난 이후에 선비로서의 절개를 지키겠다는 말을 직접 언급한 적이 없다. 도연명은 「음주시」 20수의 둘째 작품에서는 “고궁절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백대 뒤에 누가 그 이름 전하겠느냐?(不賴固窮節, 百世當誰傳)”고 하였고, 열여섯째 작품에서는 “끝까지 고궁절을 끌어안고서 굶주림과 추위를 실컷 겪었다(竟抱固窮節, 飢寒飽所更.)고 말하여 곤궁과 절개를 동시에 지켰지만(固窮節), 방회로서는 ‘節’은 없이 ‘固窮’한 상황만 내세울 수밖에 없었다. 방회는 그러나 그러면서도 곤궁한 가운데서 선비의 기개만은 잃지 않아야 한다는 뜻만은 분명히 하고 있다. 그의 「화도연명음주」 20수 가운데 넷째 작품에는 그러한 뜻이 잘 드러나 있다.

黃雀啐野田	노란 참새 들밭에서 울다가
見人輒驚飛	사람을 보면 문득 놀라 날아오르네.
飛飛一不早	날고 날아오르는 것이 한번이라도 늦으면
恐有虞羅悲	아마도 그물에 잡히는 슬픔을 걱정함이라
眯目饕餮子	탐욕스러운 이를 눈 찌푸리며 살피다가
繆謂得所依	의지할 곳 얻었다고 잘못 생각하기도 한다.
豈不知必爾	반드시 그렇게 될 줄 어찌 모르겠는가만
甘往終無歸	기분 좋게 갔다가 끝내는 돌아감이 없게 되네.
志士餒欲死	지사는 굶어서 죽을 지경이 되어도
未覺勁氣衰	굳센 기운 쇠약해짐을 깨닫지 못하네.
手口自斟酌	입과 손이 저절로 술을 주고 받으니
勿令心事違	마음 속 일이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지.

이 시는 도연명의 「음주시」 20수 가운데 넷째 작품에 대한 화창이다. 도연명의 원시는 날이 저물었는데도 무리를 잃어 외로운 새가 마침 큰 소나무를 만나서 그곳에 몸을 잘 의탁함을 묘사하면서 그 자신도 이처럼 천년토록 어긋남이 없도록 하겠다는 마음을 밝힌 시이다. 방회는 도연명의 시에 화창하면서 먹이에 유혹받은 노란 참새처럼 饕餮<sup>28)</sup> 같은 음흉한 사냥꾼에게 걸려서 마침내는 돌아갈 곳이 없게 되는 것을 경계시키고 있다. 탐욕스러운 이를 눈썹푸리며 항상 살피며 경계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의탁할 곳을 잘못 찾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지사는 굶어서 죽을 지경이 되어도 굳센 기운 쇠약해짐을 깨닫지 못한다.”는 방회의 말에서 “몸 맡길 곳 잘 얻었으니 천년토록 떠나지 않으리라(託身已得所, 千載不相違.)”고 한 도연명의 기개를 느낄 수 있다. 이 시에는 이미 원(元)의 조정에 한번 잘못 의탁한 바가 있는 자신으로서는 만년의 삶만은 전원에서 지사다운 궁절을 지키며 살고 싶다는 뜻이 담겨 있다.

방회의 시에 묘사된 전원은 기본적으로는 목가적이고 한적하다. 동시에 이러한 목가적이고 한적한 삶에는 언제나 건디기 어려운 현실의 곤궁함뿐만 아니라, 후술하게 될 바, 지난 일에 대한 후회와 인생 자체에 대한 무상감도 묘사되어 있다. 그는 이렇게 뒤엎킨 복합적인 감정 속에서도 만년의 삶만은 전원에서 지사다운 궁절을 지키며 살고 싶다는 뜻을 시를 통하여서 일관적으로 묘사하였다.

### 3) 往事後悔

방회의 만년생활에서 곤궁한 생활을 잊게 하는 것은 술과 시였다. 나이가 들어 얼굴이 추해지면서 그러한 생각은 더욱 밀려오는 모양이었다. 그는 술을 마시다가 문득문득 지난날의 과오를 떠올린다. 「화도연명음주」 20수의 여덟

28) 饕餮(도철) : 재물과 음식에 탐욕심이 많은 전설중의 들짐승으로서, 고대의 ‘鐘鼎彝器’에 그 모습이 많이 새겨져 있다. 매우 욕심이 많은 사람을 비유하는 말로 사용된다.

제(其八) 작품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華鬢極老態	하얀 귀밑머리 노인모습 극했으니
醜面乏妍姿	추한 얼굴에 아름다운 자태 부족하구나.
插花已不可	꽃을 꽂는 것은 이미 할 수 없으니
可插唯菊枝	꽂아도 되는 것은 오직 국화가지 뿐.
〇〇偶有酒	우연히 술이 있으니
此事竟大奇	이런 일 정말로 기이하다.
連作數日飲	연속하여 며칠 술을 마시니
詩亦未暇爲	시 또한 지을 겨를이 없다.
忽思往日過	문득 지난날 과오를 생각하니
何事馬受羈	무슨 일로 굴레 씌운 말처럼 지냈을까?

방회에게서 술과 시는 어느 하나만의 선택의 대상이 아니었고 항상 두 가지를 겸하였다. 술을 마시고 시를 쓰는 것은 전원생활에서 그의 일상사였다. 그런데 이 시에서는 시를 지을 겨를도 없이 며칠 연속 술만 마시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 며칠간 마실 술이 없었다가 우연히 오늘 술이 생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이면에 다른 이유가 있다. 지난날의 잘못된 출사를 후회하며 이를 잊어버리려고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이다. 방회는 지난날의 잘못된 출사를 까닭도 없이 말에 굴레를 씌운 격이었다고 후회하고 있다.

방회의 이런 후회는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아홉째 작품(其九)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高台翳榛棘	높은 누대 개암나무와 가시나무에 덮여있는데
荷鍾岡路開	삽 메고 오르기 산등성이 길 열린다.
振衣陟雲端	옷을 떨치고 구름 속을 오르니.
朗然豁秋懷	시원하게 가을 가슴이 풀린다.
言念半死樹	아, 반쯤 죽은 나무 생각해보니
類我晚節乖	나의 늦은 절개 어그러진 것과 비슷하구나.
風雷劈半腹	바람과 번개에 허리 중간이 갈라졌고

葉落禽不棲	잎이 다 떨어졌으니 날짐승 깃들지 못하네.
幸不爲薪樵	다행히도 땔나무 화톳불에 던져져
燒之化塵泥	불에 타서 재가루가 되지 않았네.
謂可材爲琴	나무재목이 거문고가 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於調恐不諧	곡조가 잘 어울리지 않을까 염려된다.
醉抱作此感	술에 취해 나무 끌어안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暝色南北迷	어둠의 기색으로 남쪽과 북쪽을 분간 못하네.
下山不可急	산 내려가는 것 급히 서둘러서는 안 되니
小僮扶我回	어린 동복이 나를 부축해 돌아간다.

이 시는 거문고를 만들 나무를 구하러 산을 올라갔던 일을 주제로 삼고 있다. 방회는 개암나무와 가시나무가 덮인 산등성이 길을 삼으로 열며 오르다 보니 마치 구름 속을 올라가는 듯 가을 가슴이 확 뚫린다. 그러나 방회는 바람과 번개를 맞아 허리가 반쯤 갈라진 데다 잎이 다 떨어져 날짐승도 깃들지 못할 죽은 나무를 보고서 문득 만년에 어그러진 자신의 절개를 떠올린다. 혹자는 이 나무를 가리켜 정상적으로 잘 자랐다면 거문고가 될 나무재목이었다고 말하지만, 방회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그 나무는 설사 꺾이지 않았다 하여도 곡조가 잘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방회가 반쯤 죽은 나무를 빌려서 자신이 비록 절개를 꺾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별로 쓰임새가 없는 인물이 되었을 것이라고 자학하고 있는 모습이다. 술에 취해 있다 보니 지난날에 대한 반성과 후회가 이젠 자학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방회는 지난날의 잘못된 일만 생각하면 다른 온갖 생각들이 다 말라버린다고 말하면서 심지어 자신을 비적(匪賊)에 비유하기도 하였다. 열한째 작품(其十一)에서 그는 그 뜻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明年五十九	내년이면 59세이지만
早歲已聞道	이른 나이에 이미 도를 들었네.
憶昔初筵遊	기억컨대 지난날 처음 원유할 때
豈信今遽老	어찌 지금처럼 급히 늙을 줄 알았으랴.
暇日一醉娛	한가한 날 한 번 취해 즐기니

往事萬念稿	지난 일로 온갖 생각이 말라버린다.
懸知身死後	미리 생각해보거니와, 내 죽은 뒤에
豈無數詩好	어찌 좋은 시 몇 수 없겠는가?
心欲刊晉史	마음으로야 『晉史』를 간행하고 싶지만
罪匪一靈寶	죄지은 도적놈이 신령한 보물을 강탈하는 격이라.
陶翁焉得作	도연명은 어떻게 하였는지
細與問江表	자세히 강남 사람에게 물어본다.

공자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가하다.(朝聞道, 夕死可矣)<sup>29)</sup>”고 말한 바 있다. 공자가 말한 도는 유가의 ‘人義之道’를 가리키는 바, 아침에 인의의 도를 들었다면 그것을 실천하다가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뜻이다. 방회는 이러한 유가의 인의의 도를 이룬 나이에 이미 깨닫고 실천하려 노력해 왔으나, 돌이켜보니 벌써 60의 나이가 가까이 되었다. 젊었던 20세 이후 약 15년간 원유를 할 때만 해도 삶의 기백이 넘쳐났는데, 아직 인의의 도를 실천하지도 못하였는데 이렇게 갑자기 늙을 줄 몰랐다는 뜻이다. 그래서 휴일에 날을 잡고 한번 마음껏 취해보지만, 오히려 지난날의 잘못된 일 때문에 온갖 생각이 말라들어 가기만 한다. 좋은 시 몇 편으로 자신이 죽은 뒤의 부끄러움을 가려보고자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듯하다. 그래서 도연명이 살았던 쑤의 역사를 편찬하고자 하나 마치 죄 많은 도적놈이 신령한 보물을 강탈하는 느낌이라 포기하고 만다.

도연명은 「음주시」 20수의 열한째(其十一)에서 “안회는 어질다고 일컬어지고, 영계기는 도를 얻었다 말하지만, 늘 궁핍하고 오래 살지 못하였거나 오래 굶주리면서 노년에 이르렀다. 비록 죽은 뒤 이름을 남겼으나 한평생 초취하였다. 죽어서 떠나버리면 무엇을 알겠는가? 마음에 맞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을(顏生稱爲仁, 榮公言有道. 屢空不獲年, 長饑至於老. 死去何所知, 稱心固爲好.)”라고 말할였다. 도연명은 살아 있을 때 마음에 맞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稱心固爲好)라고 하였는데, 방회는 도연명시에 화창하면서 그의 생각과는 달리 오히려 죽은 뒤의 명성을 생각하고 있다. 도연명처럼 살아 있을 때

29) 『論語』, 「里仁」.

부끄러운 일이 없었다면 일부러 죽고 난 뒤의 명예를 돌아볼 필요가 없겠지만, 방회처럼 살아서 잘못을 저지른 바가 있다면, 뒷날 그것을 덮을 일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도연명은 정말로 살아 있을 때만을 생각하고 마음에 딱 맞는 일만 하였을까? 방회는 그것이 궁금하여 죄 많은 도적의 심정으로 강남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어 한다.

방회가 지난날을 후회하고 있는 대상은 단지 절개를 꺾고 원의 조정에서 출사한 것만이 아니었다. 「화도연명음주」 열여섯째(其十六) 작품에서는 원의 조정뿐만 아니라 송의 조정도 포함하여서 그가 관직생활에 나갔던 것 자체를 후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早省窻徑惡	벼슬길 악하다는 것을 일찍 살폈다면
荷鋤寧帶經	호미를 메지 어찌 경서를 지녔겠는가?
豈不嘗守郡	어찌 일찍이 군을 지켜본 적이 없겠는가마는,
生涯百無成	내 평생에 전혀 이룬 바 없네.
一夕偶不飲	하루 저녁이라도 우연히 마시지 않는다면
鰥枕聽遙更	홀아비 베게에서 멀리 5경소리 듣게 된다.
殘燈暗虛牖	꺼져가는 등불은 빈 창을 어둡게 하고
落葉鏘空庭	떨어지는 잎은 빈 뜰을 시끄럽게 한다.
鼠齧叱不止	쥐가 물어뜯는 소리 고향질러도 멈추지 않으니
呼奴效貓鳴	종을 불러 고양이 흉내 내며 울게 한다.
孰與醉臥熟	누구와 함께 폭 취하여 쓰러져서는
萬事忘吾情	만사에 내 생각 잊어버릴 수 있을지.

방회의 이 시는 도연명의 「음주시」 20수 가운데 열여섯째 작품에 화창한 시이다. 도연명은 이 시에서 “어려서부터 세상 사람들과 교제 적고 육경 읽기만 좋아했더니 세월 흘러 마흔이 다 되도록 머물러 있기만 할 뿐 이룬 게 없다(少年罕人事, 遊好在六經. 行行向不惑, 淹留遂無成.)”고 말한 뒤에 시의 말미에서는 “날 알아줄 맹공이 여기 없으니 끝내 내 마음 덮어버린다(孟公不在茲, 終以翳吾情.)”고 말하여 함께 술을 마실 지기(知己)가 없음을 한탄하고 있다. 방회의 시는 여기에 화답하여서 학문하여 겸제천하(兼濟天下)의 뜻으로

벼슬에 나갔지만 이룬 것이 전혀 없다고 자조(自嘲)하고 있다. 그는 특히 ‘만약 벼슬길이 악하다는 것을 일찍 알았다면 진작 호미 메고 전원으로 은거하였을 것이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사실 방회가 관직생활에서 성취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가 49세가 되는 德祐 원년(1275) 2월에 당시 조정의 실권자이던 가사도는 燕湖 魯港에서 元의 군사와 대치하다가 대패하였다. 역사에서는 이 사실을 “魯港喪師”라 칭하고 있다. 방회는 이때 通判安吉州로 있다가 都堂稟議에 제수되어 조정으로 돌아온다. 방회는 가사도를 거악(巨惡)의 원흉으로 간주하고, 국가가 위기에 처한 이 시기에 그를 참수하여 천하에 사죄해야 한다고 하였다. 가사도는 이때 폄적되어 아직 揚州에 있었지만, 조정의 아첨꾼과 그의 앞잡이들은 가사도가 다시 재기할까 두려워서 아무도 그를 죽이지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방회는 3월 14일 태황태후의 처소인 麗正門에 나아가 그를 주살해야 할 10가지의 죄목(幸, ‘詐’, ‘貪’, ‘淫’, ‘騙’, ‘驕’, ‘吝’, ‘專’, ‘謬’, ‘忍’)을 논한 글을 올린다. 그가 논한 10가지 죄목은 “魯港喪師”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사실상 理宗과 度宗 양조의 부패를 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방회는 또 여기에 더하여서 廖瑩中, 翁應龍, 馬逢勝, 王起宗 등 이미 도착한 이들은 참수하고, 아직 도착하지 않은 이는 체포해 들어서 참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상서 당일 謝太后는三省에 그것을 알리고, 방회를 太常寺簿로 제수하니 모두가 매우 기뻐하였다 한다. 방회는 5월 19일 다시 상소하여서 가사도를 주살하길 청하면서, 좌승상 王燾을 탄핵하였다. 방회는 左丞相 程宜中의 반대로 이해 7월 10일에 오히려 建德府 지사로 나가게 된다.<sup>30)</sup> 그는 건덕부에서 바야흐로 병난이 일어나려 하는 시기에 학관을 세우고, 아량으로서 부미한 풍속을 늘렸다. 또 악한 자를 감싸고 강폭한 자를 가려내며, 상과 벌을 엄정하게 하니, 인근의 郡에서는 비적들이 틈을 타서 몰래 출몰하였지만, 유독 방회가 다스리는 건덕부만은 그 경내가 숙연하였다고 한다.<sup>31)</sup>

30) 방회의 이때 공식직함은 “秘書郎, 加直秘閣, 知建德府事, 兼節制往來駐戍軍馬, 兼都督府參議官”이다.

31) 권호중·황영희, 「방회의 삶과 시세계」(『中語中文學』 53집, 2012, 12.), 34-35 쪽.

방회는 이렇게 당시의 실권자인 가사도를 참해야 할 10가지 이유를 상소한 바가 있고, 건덕부로 나가서는 학관을 세우고 풍속을 바로 잡으며 비적들의 출몰을 방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도 하다. 그러면서도 그가 “벼슬길 악하다는 것을 일찍 살폈다면, 호미를 메지 어찌 경서를 지녔겠는가?”라고 말한 것은 역시 평소의 소신과는 달리 원에 항복하고 원의 조정에 출사한 일 때문이었을 것이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오경의 종소리가 들리도록 잠을 못 이루지 못하는 것이 어찌 떨어지는 나뭇잎 소리와 물어뜯는 쥐 소리 때문이었겠는가? 지기(知己)가 있다면 함께 술을 마시다 취하여 쓰러져서, 그 모든 지난날의 부끄러웠던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싶다는 뜻을 드러내었다.

방회는 지난날의 이중적인 태도로 인해 어느 누구도 자신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더 이상 관직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다. 몸은 분명 葛天氏의 후예이지만 출사는 원의 조정에서 했던 일을 참회하면서 그 모든 지난날의 과오를 술과 침묵 속에 부처버리고 싶다는 뜻을 시를 통해 드러내었다. 「화도음주시」 20수의 열여덟째(其十八)에서 그 뜻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三戒二已亡	세 가지 계율에 두 가지는 이미 없어졌으니
所戒惟在得	경계하는 것은 오직 ‘탐욕’이다.
大道辟我前	큰 길이 내 앞을 열고 있으니
幸無兩岐惑	두 갈림길에서 미혹됨이 없기를 바란다.
誰歌返招隱	누가 나의 돌아옴 노래하며 손짓하여 불러주겠는가?
口待穢穢塞	입은 더러운 버선으로 막힌 채 죽기를 기다리는데.
身爲葛天民	몸은 갈천씨의 후예이나
宅在建德國	집은 건덕국에 있었네.
努力築糟丘	열심히 힘써서 술지게미 언덕 만들지만
萬感付一默	온갖 생각은 한 번의 침묵 속에 붙인다.

공자는 군자가 경계해야 할 세 가지로서, ‘色’, ‘鬪’, ‘得’을 말한 바 있는데<sup>32)</sup>, 혈기가 아직 안정되지 않은 젊은 나이에는 ‘색(色)’을, 혈기가 한창 강

성하기 시작한 장년에는 ‘다툼(鬪)’을, 그리고 혈기가 쇠약해진 노년에는 ‘탐하는 것(得)’을 각각 경계하도록 주의시킨 바 있다. 방회는 노년이 되었으니 앞의 두 가지는 이미 더 이상 경계할 필요가 없지만, 무엇인가 얻으려고 탐하는 것만은 아직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어지는 글에서 그는 이제 전원에서 은거하는 큰 길이 자신의 앞길을 열고 있으니 더 이상 갈림길에서 미혹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5-6구에서는 淮南小山(劉安이라는 설도 있음)의 「招隱士」에서 노래한 屈原과 唐代宗의 재상 元載의 ‘穢襪塞口(더러운 버선으로 입을 막다)’를 전고로 삼고 있다. 5구는 「초은사」 노래를 부르며 산중의 王孫 굴원을 불러주듯이, 만년에 충절을 꺾은 나를 불러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이고, 6구는 자신은 마치 탐욕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신던 더러운 버선을 입안에 가득 채운 채 참형을 당한 당의 원재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sup>33)</sup> 방회는 그러한 이유로서 바로 몸은 갈천씨의 후예이나 집은 건덕국에 있었기 때문에 설명하고 있다. 도연명은 「五柳先生傳」에서 자신을 가리켜 “무회씨의 백성이요, 갈천씨의 백성이라!(無懷氏之民歟, 葛天氏之民歟!)”고 말한 바 있다. 무회씨와 갈천씨는 중국고대의 전설상의 제왕으로서 이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서로 말을 하지 않아도 믿음이 생기고, 가르치지 않아도 교화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무회씨의 백성과 갈천씨의 백성은 중국의 순박한 백성을 비유할 때 쓰이는 표현이다. 방회는 이러한 갈천씨의 후손으로서 건덕부에서 원조의 관리로만 5년이나 일하였다. 자신이 관직에 탐욕하여 이민족의 조정에도 출사였으니 원재의 탐욕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한 잘못을 생각하면 술지게미가 언덕이 되도록 마실 수밖에 없고 부끄러운 모든 생각은 침묵으로 돌릴 수밖에

32) 『論語』, 「季氏篇」: “孔子曰, 君子有三戒. 少之時, 血氣未定, 戒之在色. 及其壯也, 血氣方剛, 戒之在斗. 及其老也, 血氣既衰, 戒之在得.”

33) 『通鑑記事本末』 卷32: 원재가 형을 주관하는 사람에게 청하길, “원컨대 빨리 죽기를 바랍니다.”고 하였다. 형을 주관하는 사람이 말하길, “재상께서는 반드시 약간의 오욕을 당해야 하겠으니 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였다. 그리고는 그의 더러운 버선을 벗겨 그의 입을 채운 뒤에 그를 죽였다(載請主者: “願得快死!” 主者曰: “相公須受少汚辱, 勿怪!” 乃脫穢襪塞其口而殺之.)

에 없는 것이다.<sup>34)</sup>

도연명은 「음주시」 20수의 셋째에서는 ‘賴固窮節(고궁절을 의지한다)’, 아홉째에서는 ‘抱固窮節(고궁절을 끌어안는다)’는 말을 직접 언급하면서 ‘곤궁(窮)’과 ‘절개(節)’를 동시에 지킨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방회는 만년의 절개를 이미 상실한 바가 있는 지라 도연명의 시에 화답하면서도 ‘窮節’이란 말을 한 번도 언급하지 못하고 있다. 방회의 「화도연명음주」 20수 가운데 ‘固窮’의 의미로 ‘窮’이 언급된 실례는 단 한 번도 없다.<sup>35)</sup> 그는 자신의 어려운 곤궁한 경제상황을 묘사할 때도 일부로 ‘窮’자를 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그의 시에서 ‘節’을 언급한 곳은 도연명처럼 역시 3째 시와 9째 시인데, 각각 “屈體喪關節”와 “類我晚節乖”로 표현되어 있다. 방회는 이렇게 ‘節’을 언급할 때도 “喪關節(그 절개를 잃었다)”와 “晚節乖(만년의 절개가 어그러졌다)”처럼 자신의 행위를 부정적으로 표현하였다. 도연명과 같은 ‘窮節’을 지키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 4) 人生無常

도연명의 「음주시」 20수에는 인생무상을 읊은 구절이 적지 않지만,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작품이 특히 그러한 마음을 잘 읊고 있다. 도연명은 여기에서 “쇠락과 번영은 고정된 바가 없고 번갈아가면서 존재하는 것(衰榮無定在, 彼此更共之.)”이라고 말하면서, ‘邵平이 秦 나라 때는 東陵侯를 지냈지만, 진 나라가 망한 뒤에는 집안이 가난하여 장안성 밖에서 오이를 심으며 살았던 일’을 묘사하였다. 그의 말처럼 “추위와 더위가 번갈아가며 바뀌듯이 사람의 道도 항상 이와 같은 것(寒暑有代謝, 人道每如此.)”이다. 방회는 도연명의 시에

34) 도연명의 해당 원시(其十八) 말미에서 “어진 사람은 그 마음을 숨에 말하거나 침묵하거나 어찌 잘못된 적이 있겠는가?(仁者用其心, 何嘗失顯默)”라고 말한 바가 있는데 방회는 이 말에 화창하여서 “만 가지 생각을 한 번의 침묵에 부친다(萬感付一默.)”고 말하였다.

35) 방회의 12째 시에서 “當此窮秋時”란 말은 있지만 이것은 ‘固窮’의 ‘窮’과 상관없다.

화창하여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는 삶의 이치를 첫째 시에서 다음과 같이 읊고 있다.

生死乃常理	태어나서 죽는 것은 바로 변하지 않은 이치,
興亡殊似之	흥하면 망하는 것도 특히 그것을 닮았다.
火鳥化王屋	하늘의 불이 왕의 거처에서 불새로 변화하고
鼎遷亦有時	아홉 개의 솥이 옮겨가는 것도 또한 때가 있다.
驪山發金雁	여산에 황금 기러기 나왔고
漢陵復如茲	한의 무덤 또한 이와 같았다.
丹成云得仙	단약 완성되어 신선이 되었다고 하나
虛塚令人疑	빈 무덤은 사람을 의심하게 하네.
杯酒幸到手	한잔 술 다행히 손에 들어오면
無螯亦當持	게가 없어도 역시 당연히 술잔 잡아야지.

周 武王이 殷의 紂를 치기 2년 전에 孟津에서 병사를 열병하고, 황하를 건너간 이후에 하늘에서 불이 오르내리다가 왕의 집에 이르러서는 붉은 까마귀로 바뀌었다고 한다.<sup>36)</sup> 이후로는 불까마귀(火鳥)로 周 왕조의 국운을 가리키게 되었다. 또 夏의 禹王이 9주를 상징하는 아홉 개의 솥은 만든 이후 9정(鼎)은 夏, 商, 周의 국가권력의 상징이 되었으니 솥의 이동은 바로 왕조의 이동을 암시한다. 이러한 일은 모두 생명이 태어나면 죽는 것과 같이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것이다. 진시왕은 무덤에서 금 기러기가 나올 정도로 자신의 무덤을 화려하게 꾸몄고<sup>37)</sup>, 또 한의 왕릉 또한 그러했지만, 결국은 모두 흥망성쇠를 겪게 되었다. 그러니 단약이 완성되어서 그들이 신선이 되었다고 말하지만, 텅 빈 무덤만 남아 있으니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인생사란 이렇게 허망하다. 시의 마지막 구는 쫓의 畢卓과 관련된 전고이다. 술을 좋아하였던 필탁은

36) 『史記』, 『周本紀』: “有火自上戛于下, 至于王屋, 流爲鳥, 其色赤.”

37) 『三輔故事』의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項羽가 函谷關으로 들어간 이후 30만의 인력이 진시왕의 능묘를 도굴한 바 있는데 이때 갑자기 황금 기러기가 무덤에서 나와서 남쪽으로 날아갔다. 수백 년이 흐른 三國時期 寶鼎 원년에 日南에서 태수를 하던 張善이란 관리에게 어느 날 황금 기러기 한 마리를 보내온 사람이 있었다. 그가 즉시 황금 기러기 위의 문자를 보니, 그것은 바로 진시왕릉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변 사람에게 말하기를 ‘큰 배에 술을 가득 채우고, 사철의 맛있는 음식을 배의 양 머리에 두고, 그리고 오른 손으로는 술잔을 잡고, 왼손으로는 계를 잡고 뱃놀이를 할 수 있다면 족히 한 평생을 다할 수 있겠다.’고 말한 바 있다.<sup>38)</sup> 이 일에서 옛 사람들은 한 손으로 계를 잡고 한 손으로 술잔을 잡고 노는 것을 인생 최고의 즐거움으로 여기었다 한다. 그러나 방회는 인간의 생사와 왕조의 흥망이 이미 태초부터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계를 안주로 삼지 않아도 술만 마실 수 있다면 행운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오직 술로써 그 허망함을 달래고 있는 모습이다.

방회는 「화도연명음주」 20수의 열다섯째(其十五)에서는 전원에서의 삶을 풀끝에 맺힌 이슬에 비유하면서 삶의 무상감을 직접 묘사하기도 하였다.

秋風吹古城	가을바람 옛 성에 불고
亂山繞荒宅	어지러운 산 황량한 집을 둘러다.
樹影日以疎	나무 그림자 날로 성글어지니
沼落見萍跡	소택에 물이 빠지니 부평초 자취 보인다.
客來觴我菊	손님이 와서 나에게 국화주 권하는데
獻酬殆至百	술을 올리길 거의 백번이나 이른다.
斜照未云夕	비긴 햇살 아직 저녁이 아닌데도
草端露已白	풀끝에는 이슬이 이미 하얗다.
遷化每如此	인간의 죽음도 언제나 이와 같으리니
不飲眞可惜	술을 마시지 않는다면 정말 애석하리라.

방회는 전원의 경물을 묘사하면서 “초목이 정말 맛있다(草木故有味)”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의 시에 묘사된 전원은 기본적으로는 목가적이고 한적하다. 어지러운 산에 둘러싸인 황량한 농가와 잎이 많이 성글어진 수목들, 그리고 물이 줄어들어 부평초 흔적 드러낸 소택과 아직 저녁이 아닌데도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 이러한 전원풍경을 배경으로 좋은 사람들과 백 잔의 술을 마

38) 『晉書·畢卓傳』：“卓嘗謂人曰：‘得酒滿數百斛船，四時甘味置兩頭，右手持酒杯，左手持蟹螯，拍浮酒船中，便足了一生矣。’”宋·劉義慶의 『世說新語·任誕』에도 비슷한 기록이 보인다. 여기에서 ‘把酒持螯’ 또는 ‘持螯把盞’라는 典故가 생겼다.

시지 않는다면 정말 애석하리라. 그러나 방회는 그러한 목가적이고 한적한 삶을 궁극적으로는 풀끝에 맺힌 저녁이슬과 같은 허망한 삶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술로서 달래지 않는다면 극복할 수 없는 무상감이었던 것이다.

방회는 전통 문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어졌던 글쓰기 행위마저도 술 한 잔의 가치만 못하다고 말하고 있다. 방회는 글쓰기와 관련된 그러한 무상감을 「화도연명음주」 20수의 열아홉째 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氣豪心未平	기세는 호기롭고 마음은 아직 평담하지 못하여
三已復三仕	몇 번이나 전원생활 그만두고 다시 출사하였네.
毫髮志不伸	터럭만한 뜻도 펼치지 못하면서
所至但屈已	이르는 곳은 오직 자신을 굽힐 뿐이었네.
屢觸灸眉怒	나도 누차 남을 공격하다가 화를 접했으니
詎啻折腰恥	어찌 단지 허리 꺾는 수치뿐이었겠는가?
七年困江國	7년 동안 엄주에서 곤궁하게 지내다가
脫身走故里	몸을 빼어서 고향으로 갔네.
欲著藏山書	산촌에 보관할 책을 짓고자 하여
實錄立傳紀	사실대로 기록하여 역사를 세우고자 하였다.
往事遊難問	지난일 아득하여 묻기도 어려우니
毫簡遽云止	붓과 글 급히 멈추었네.
不如一杯酒	저술활동은 한 잔의 술만 못하니
此亦焉足恃	이 또한 어찌 믿을 만하랴.

방회는 20세 이전에는 고향에서 학문을 하였고, 20세 이후로 35세까지는 주로 강호를 여행하였다. 이 기간 동안 방회는 한편으로는 강호의 시인을 만나 詩道의 가르침을 청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위가 높은 관리들을 만나서 출사의 길을 도모하였다. 그러다 35세 되는 景定 2년 浙漕試에 합격하고, 이듬해 별원성에서 을과 수석을 한 뒤로 36세부터 관리의 길로 나간 이후 55세에 건덕부 지사를 그만둘 때까지 관직생활을 한다. 관직생활을 그만 둔 방회는 이후 81세의 일기로 생애를 마칠 때까지 더 이상 출사를 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볼 때 둘째 구에서 “몇 번이나 전원생활 그만두고 다시 출사하였네.”

라고 한 말은 방회 자신을 가리킨 말이 아니라 도연명을 가리켜서 한 말로 보아야 한다. 방회가 화창한 도연명의 원시인 「음주시」 20수의 열여덟째도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굶히고 출사하였다가, 마침내는 본성을 지키고자 전원으로 돌아왔음’을 주제로 하고 있다, 그러니 1-4구는 도연명의 그러한 삶을 묘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sup>39)</sup> 5-8구는 방회가 가사도를 참해야 하는 열 가지 이유를 들어 상소하면서 남을 공격하였다가 그 일로 반대를 맞게 되어 오히려 당초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건덕부 지사로 나갔던 일과, 그리고 건덕부에서 원의 군대에 항복한 뒤에 절개를 꺾고 출사하였다가 다시 본의와 상관없이 관직에서 물러나고, 관직에서 물러난 뒤에 고향으로 갔던 일 등을 기술한 것이다.

마지막 9-12구는 은퇴 이후에 저술활동에 전념하려는 마음과 그러한 활동이 한 잔의 술보다도 의미 없음을 깨닫게 된 것을 묘사하고 있다. 방회는 지난날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역사를 세우고자 하였지만, 이미 아득한 일이 되어서 묻기도 힘든데다가 그러한 일이 후세에 이름을 남길 만큼 믿을만한 일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결국은 한 잔의 술만도 못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인생사 모든 일이 무상하기 이를 데 없음을 읊고 있다.

방회는 인간세상에서 참다운 진실을 회복하는 일도 천명에 의하여서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는 「화도음주시」 20수의 스물째 수에서 그 뜻을 다음과 같이 읊고 있다.

天命孰爲之	천명은 누가 그것을 행하기에
萬有凝精眞	만물에 정진(精眞)이 응축되었는가.
變氣間龐雜	기운을 변화시켜 잡스러움을 섞긴 하여도
未嘗泯其淳	일찍이 그 순박함을 잃은 적이 없네.
風雨驟冥晦	바람과 비에 갑자기 어두워지기도 하지만
陽鳥出還新	태양이 나와서 다시 처음으로 돌리네.
聖孔昔云沒	성인 공자께 지난날 돌아가신 뒤로

39) 도연명은 29세에 江州의 祭酒, 31세에 桓玄의 幕僚, 40세에 劉裕의 參軍, 41세의 彭澤 縣令 등을 역임하였다.

楊墨仍儀秦	楊朱와 墨翟에 더하여 張儀와 蘇秦이 나왔다.
復生一辯孟	다시 또 변론하는 맹자가 한 번 나오니
掃之如遊塵	그들을 청소하길 마치 먼지처럼 하였다.
諸老自有宗	여러 노인들께서 스스로 받드는 바가 있어서
鑽研患不勤	깊이 연구함에 근면하지 못할까 염려하였다.
彼以頓自詫	저들은 고개 숙이는 것으로 스스로를 속이지만
所見特未親	드러나 있는 것을 일부러 가까이 하지 않을 뿐이다.
月晦有死魄	달은 그름이 되면 점점 어두워지지만
潦澗無迷津	큰비와 가뭄에도 길을 잃음이 없다.
天定盍少俟	하늘이 정한 바 있으니 어찌 조금 기다리지 않는가,
屢〇〇於巾	자주 두건에 (방회의 원래 시에 두 글자가 빠져 있음)
不飲但多憂	술을 마시지 않으면 단지 근심만 많아지니
無乃眞癡人	바로 진짜 바보가 아니겠는가?

이 시는 도연명의 「음주시」 20수의 마지막 작품에 대한 화창이다. 도연명의 원시는 기본적으로 복희와 신농 이후 진실은 찾는 이가 적어졌고 마침 공자가 나와서 일시 순박해지고, 伏生 등 한나라 초기에 여러 사람이 나와 수고는 했지만, 세상은 끝내 쇠망하여 육경을 찾는 이가 없게 됐다고 한탄하고 있다. 楊勇 교수는 도연명 원시를 가리켜 ‘세상의 참된 모습이 다 없어졌으니 오직 육경만이 그 잘못을 구제할 수 있다. 그러나 육경을 가까이 하는 이는 한 사람도 없으니, 슬피 천추의 세월을 바라보며, 오직 열심히 술을 마실 뿐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此首言眞風旣逝, 唯有六籍可求其弊. 但今無一親之者, 則悵望千秋, 惟有快飲而已.)’고 평하였다.<sup>40)</sup> 도연명은 쇠망한 세태를 자포자기적인 심정으로 한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도연명의 시에 화창한 방회의 시는 그렇지 않은 않다. 방회는 “천명은 누가 행하였기에 만물에 精眞이 응축되었는가?” 하고 물은 뒤에 “기운을 변화시켜 잡스러움을 섞긴 하여도 일찍이 그 순박함을 잃은 적이 없다.”고 답하고 있다. 공자 이후 양주와 목적, 장의와 소진 같은 邪說이 나왔지만, 결국은 맹자가 나와서는 마치 먼지처럼 청소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비록 세태가 잘못되었긴 하나, ‘하늘이 정

40) 楊勇, 『陶淵明集校箋』 169쪽.

한 바가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고 말하고 있다. 방희는 인간의 생사나 흥망성쇠에 하늘이 정해진 이치가 있듯이, 인간세상의 참됨을 회복하느냐의 여부도 이미 천명에 의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였다. 인생사 모든 것이 천명에 의해 정해져 있고, 또 그 천명이 올바르게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하니, 인간은 그저 술만 마시면 된다는 것이다. 술을 빌려서 억지로라도 지난날의 과오와 인생의 무상함을 잊어보려는 모습이다.

#### 4. 맺음말

도연명은 그의 생전이나 또는 그가 죽은 뒤 상당한 기간 동안 그의 문학적 가치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은 소통이 그의 문집을 편찬하고, 또 그의 작품에 서를 쓰면서 비로소 상황이 변화하였다. 도연명의 지위는 송대에 이르러서 소동파의 和作詩로 인하여서 비로소 크게 제고되었다. 소통이 한 사람의 위대한 시인을 발굴해 내었다면, 소식은 도연명을 불후의 인물로 확립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sup>41)</sup>

본고에서는 방희의 시 가운데 도연명의 「음주시」 20수에 화창한 작품만 분석하였다. 방희가 도연명의 시에 화작시를 지은 것은 그 자신 시작학습 과정에서의 귀결처로 도연명을 선택했다는 사실 이외에도 失節한 문인으로서 도연명에 대한 인간적인 흥미가 있었으며, 은퇴 이후 전원생활에서 갖는 그에 대한 친밀감 내지는 동질감의 자각이 和陶詩를 짓는 詩史적인 흐름과 일치하면서 자연스럽게 행해진 창작활동으로 보인다. 방희의 「화도연명음주」 20수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잘 구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방희가 보기에, 도연명은 난국을 안정시킬 타고난 자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등용되지 못하였다. 이러할 때 도연명은 변화의 기미와 기틀을 파악한 뒤 전원으로 은퇴하여 선비로서 출처를 분명히 한 '窮節'을 지켰다. 방희는

41) 袁行霈, 「論和陶詩及其文化意蘊」, 152쪽.

도연명의 「음주시」에 화창하는 방법을 통하여서 그의 이러한 인품과 삶에 경모의 마음을 잘 드러내었다. 방희의 시에 묘사된 전원은 기본적으로는 목가적이고 한적하다. 그러면서도 그러한 목가적이고 한적한 삶에는 언제나 견디기 어려운 현실의 곤궁함도 표현되어 있다. 방희는 이러한 목가적인 삶과 곤궁한 삶이 병존하는 전원에서도 선비로서의 기개를 지키고 살다보면 마침내는 우회등선할 수 있기를 상상하고 있었다. 방희는 만년의 절개를 이미 상실한 바가 있는 지라 도연명의 시에 화답하면서도 ‘窮節’이란 말을 한 번도 언급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묘사할 때도 의도적으로 ‘窮’자를 피하였다. 또 그의 시에서 ‘節’을 언급할 때는 “喪闕節(그 절개를 잃었다)”와 “晚節乖(만년의 절개가 어그러졌다)”처럼 자신의 행위를 부정적으로 표현하였다. 도연명과 같은 ‘窮節’을 지키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방희는 인간사가 모두 천명에 의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였다. 방희는 인간의 생사와 나라의 흥망성쇠뿐만 아니라 역사를 세우기 위해 글을 쓰는 행위와 세상에서 참다운 진실을 회복하는 일도 모두 천명에 의하여서 태초부터 정해져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천명이 올바르게 행해지고 있으므로 인간은 그저 술만 마시면 된다는 것이다. 방희의 「화도연명음주」 20수에는 이러한 인생관들이 잘 묘사되어 있다.

방희가 도연명 시의 운을 사용한 시로는 『和陶淵明飲酒』 20수 이외에도 「和陶詠二疎爲郝夢卿畫圖盧處道跋作」와 「九日用淵明韻二首」가 또 더 있다. 그는 또 도연명의 문집을 읽고 그 감상을 시로 짓기도 하였으며(「讀陶集愛其致意於菊者八因作八首」), 도연명의 시 내용을 주제로 한 그림을 보고 시를 짓기도 하였으며(「題淵明採菊圖」, 「題淵明歸來圖」), 더 나아가 도연명의 모습을 주제로 한 그림을 보고 시를 짓기도 하였다(「題淵明像」). 방희의 시 가운데 도연명과 관련된 이러한 시들이 몇 수나 되는지 모두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이러한 시들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별도의 논문을 통하여 논의할 계획이다.

## 參考文獻

- 강성위, 『方回의 詩學理論研究』, 서울대박사학위논문, 1996.
- 권호중·황영희, 「방회의 삶과 시세계」, 『中語中文學』 53집, 2012.
- 霍志軍, 「宋代和陶詩芻論」, 『天水師範學院學報』 35卷 6期, 2015.
- 李曉璐, 『方回田園詩研究』, 中國, 河北大學碩士論文, 2010.
- 羅超, 「方回降元之文化詮釋」, 『殷都學刊』 2期, 2001.
- 羅永忠, 「方回『桐江續集』中的詩歌創作」, 『作家雜誌』 9期, 2011.
- 孫凱昕, 『方回研究』, 復旦大學博士論文, 2010.
- 孫克寬, 「元方回詩與其詩論」, 『東海大學學報』 1期, 1959.
- 吳媛, 『方回的閑寂詩研究』, 中國, 河北大學碩士論文, 2006.
- 夏小鳳, 「步武淵明, 追悔其身-方回和陶詩芻論」, 『瀋陽工程學院學報』, 2期, 2012.
- 蕭麗華, 「朱東潤「述方回詩評」的幾點商榷」, 『中國文學研究』 3期, 1989.5.
- 許清雲, 『方虛谷之詩及其詩學』, 東吳大學博士論文, 1980.許清雲, 「方回詩研究」, 臺灣, 『銘傳學報』 第27期, 民國79.
- 嚴壽澂, 「方回詩論與江西詩派」, 『中華文史論叢』 1986年 2輯(總38輯)
- 楊婉培, 「方回『瀛奎律髓』之詩學批評論研究」, 『景文學報』 18卷 2期, 2008.
- 袁行霈, 「論和陶詩及其文化意蘊」, 『中國社會科學』 6期, 2003.
- 周靜, 「論方回的崇陶與學陶」, 『求索』, 3期, 2008.
- 方回, 『桐江集』(續修四庫全書 影印本), 上海古籍出版社.
- 方回, 『桐江續集』(文淵閣四庫全書 影印本), 臺灣商務印書館.
- 潘柏澄, 『方虛谷研究』, 臺灣, 新文豐出版公司, 1978.
- 金甫暉, 『蘇軾“和陶詩”考論』,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13.
- 楊勇, 『陶淵明集校箋』, 正文書局, 臺北市, 民國 76年.
- 詹杭倫, 『方回的唐宋律詩學』, 北京, 中華書局, 2002.

## Abstract

## A Study on Fang Hui(方回)’s “Poetic Responses to Tao Yuanming(和陶詩)”

Hwang, Yeong-hi / Kwon, Ho-jong

Tao Yuanming, as a great poet from the Eastern Jin dynasty(東晉) to the Liu Song dynasty(劉宋),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history of Chinese poetry and culture. He wrote a set of ‘twenty drinking poems(飲酒詩20首)’ Cherishing his personality and poems, a lot of people such as the relegated, bureaucrats in high position, hermits, adherents of a former dynasty and monks wrote poems in response to his ‘twenty drinking poems’ through the ages and dynasties. This poetic response became a cultural phenomenon, and this phenomenon not only has proved that Tao Yuanming has an enormous influence on the later writers, but also has led them to chase him with a strong feeling of identity and worshipping.

After Song dynasty’s destruction Fang Hui, who once was an official of Song dynasty, served Yuan dynasty of different race for a certain period. Retiring from official position, on one hand he felt a very tranquil life, but on the other hand he regretted the fact that he bended a moral integrity during that period. Like the former poets he expressed this kind of feeling responding to Tao Yuanming’s ‘twenty drinking poems(飲酒詩20首)’ This paper tries to analyse Fang Hui’s thematic consciousness expressed in his ‘Poems in Response to Tao Yuanming’s twenty drinking poems(「和陶淵明飲酒二十首」)’ systematically, dividing them into four categories as ‘Yuanming Admiration(淵明追慕)’, ‘Rural Tranquility(田園閑寂)’, ‘Past Regret(往事後悔)’, ‘Life Impermanence(人生無常)’

Key words : Tao Yuanming, Fang Hui, Su Shi, Poetic Responses to Tao Yuanming, Poems in Response to Tao Yuanming’s poems, Drinking poems, Song Dynasty, Yuan Dynasty

투 고 일 : 2016. 5. 10. / 심 사 일 : 2016. 5. 15.~ 2016. 6. 15. / 게재확정일 : 2016. 6. 16.